

### 지범 스님 7년만에 새음반 '부처님 마음'

불을 가수 지범스님(제스 불광사 스지)이 제6집 앨범 '부처님 마음'을 냈다.



13세 때 낙양사 서종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 승가대학 대교과를 졸업한 스님은 1992년 '부모은중경'을 발표하며 불을가수로 데뷔, 불을포교에 매진해 왔다.

이번 앨범은 '95년 천불 명상과 임계로 가오나' 이후 7년 만에 선보인 것으로 선사와 경전에 곡을 붙인 '불공', '청산은 나를 보고', '어머니 마음' 등 모두 12곡이 담겨있다.

지범스님은 오는 5월 11일 제주 문예회관 대강당에서 부처님 오신날 기념 공연도 할 예정이다.

### 문학소식

#### 영광갤러리 개관4돌 소장전

부산 영광갤러리 개관 4주년 기념 소장전이 2월 3일까지 열린다. 이번 전시에는 지역성을 토대로 11번의 개인전과 한국사조의 역사전, 후스면 프로메스 등의 그룹전 활동을 해 온 김아타 씨를 비롯, 연꽃을 주제로 사진활동을 해온 이경순 씨, 다큐멘터리 장르의 작업을 해 온 이삼일 씨 등의 작품이 선보인다.

#### 춘천은 월간 '차의 세계' 창간

우리 전통 차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한 차전문 월간지 <차의 세계> 발행인 최석환이 창간했다. 창간호에는 '다산일미의 정신을 이어온 수산스님'을 비롯, '한국 선자의 수용과 전개' '명차기행-천하절경에서 우리나라는 무어일까?' '차인열전-진검파사' 등 다양한 읽을거리를 실었다.

#### 국내 첫 석박물관 개관

전통 띠와 부엌살림을 살펴볼 수 있는 박물관이 19일 서울 창덕궁 앞 국악로 거리에 문을 열었다. 백화여대 윤숙자 교수한국 전통음식연구소장이 마련한 이 박물관에는 윤 교수가 지난 20여년간 수집한 2천여점의 도자 식기류와 조리도구, 재래용구, 전통 띠 조리기구 등이 전시중이다.

## 렌즈에 담은 천년신라의 '영겁과 찰나'

강우방 교수 '사진전' 16~31일 관훈동 학교재

노련한 미술사학자의 눈에 포착된 천년 고도 신라의 정신과 미학은 어떠한 모습일까?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지낸 미술사학자 강우방 이화여대 교수가 지난 30여년간 직접 촬영한 경주 일대 자연과 신라시대 미술작품 사진 80여점을 선보이는 생애 첫 전시 '영겁, 그리고 찰나'를 서울 관훈동 학교재 회랑에서 31일까지 갖는다.

카메라의 구조도 모르고 사진 찍는 방법도 배운바 없는 강씨는 끝없는 시행착오 끝에 스스로 터득한 사진 실력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강씨가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사로 경주생활을 시작한 1970년~82년 당시 찍은 흑백사진들과, 지난 97년~2000년 국립경주박물관장으로 재직할 시절 찍은 경주의 산과 들, 논과 밭, 불상 사진이 전시된다.

지금도 학생들과 답사에 나설 때면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앞장선다는 강씨는 국립경주박물관장을 역임했던 지난 5년 동안에도 주말이면 산으로 들로, 절로, 능으로 바쁘게 돌아다니다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사물의 본질을 드러내는 한 찰나를 포착하기 위해 수십, 수백 컷의 사진을 찍었다. 사진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인지하게 된 것은 경주의 공

기와 빛 때문이었다. 작품도 작품이지만 경주에서 최근 다섯 해를 보내면서 발견한 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자연의 무상한 모습이었다. 작품은 그 일부에 불과했다. 경이로운 자연에 눈이 떠졌다고 할까. 그러면서 예술작품의 본질에 더욱 가까이 다가선 느낌이었다."

이번 전시가 문화재 사진전이 아닌 '영겁과 찰나'를 주제로 한 것은 "능이나 탑, 불상 등이 중심 소재를 이루지만 그것은 다만 소재에 불과할 뿐 이들 미술품을

### 경주 일대 자연·문화재 명암 대비로 생명 넣을

"오브제'로 파악하고 그 본질이 잘 드러날 때를 포착하려 했다"고 말했다. 미술사 연구의 과정에서 우리 자연과 예술을 렌즈를 통해 해석한 바를 보여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강씨의 사진은 자연 속에서 연출된 이미지를 담아낸 어느 사진들과는 거리가 있다.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판지(彈指)의 순간에 사물의 본질을 파악하려는 것. 영원 속에서 찰나를 붙드는 것. 찰나에 사물의 변화를 멈추게 하여 영원히 남기는 것이다. 그러나 그 사진마저 변한다. 하나 그때 찰나감이 아



◇석굴암 보살상은 웃고 분노하는 여러 작은 얼굴 표현을 통해 근기가 다룬 중생 모두를 구원하려는 자비심을 극대화했다.

나라 형언할 수 없는 신비한 느낌, 불가사의한 기쁨을 느낀다. 영겁과 찰나는 상즉상입(相即相入)하는 것이다. 혼연일체가 되는 불이(不二)의 상태를 사진에서 때때로 나는 느낀다"라고 말하는 강씨. 그래서 이번

전시회의 주제를 '영겁, 그리고 찰나'라고 이름 붙였는가 보다. 강씨는 이번 전시회에 내놓지 못한 사진까지 총 233장을 담은 사진집 <영겁(永劫), 그리고 찰나(刹那)> (영화당도 펴냈다.

문화담당= 이은자 기자 elee@buddhapa.com

### 인 터 뷰

#### "부처님 가르침 오롯한 동화 슬터"

한국일보 신춘동화 당선 봉현주 씨

"진짜 실력을 갖추어 불교를 전면에 드러내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고스란히 전할 수 있는 참다운 불교동화를 쓰는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올해 한국일보 신춘문예에서 동화 '보리암 스님'으로 당선된 봉현주씨(48)의 말이다.

봉씨는 10년 전부터 문학을 공부해오다 지난해 본격적으로 동화에 뛰어들었다. 작가 이상재 선생에게 지도를 받으며 '동화야 말로 자신의 적성에 맞는 문학'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처음 도전한 신춘문예공모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았다.

병든 할아버지를 위해 고사리를 뜯어다가 허허하루를 살아가는 어린 상구와 그 고사리를 팔아주는 보리암 주지스님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이 작품은 한마을선원 안양 본원 신도인 봉씨가 대형 큰스님의 법문을 통해 접했던 어느 청년의 이야기를 응용해 동화적으로 옮긴 것이다.

"초등학교 2학년 딸을 키우는 주부로서 불교동화를 대할 때 마다 무조건 여자를 읊너로 그리거나, 동화속의 모든 등장인물들이 법문을 하려고 하는 따위의 어색하고 동화적이지 못한 작품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봉씨는 "무궁무진한 불교 소재를 개발해 소재적으로 풍부하고, 내용적으로도 알찬 동화를 쓰기 위해 더욱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 "교직 정년후 연지춤 연구 열심"

'시조세계' 신인상 당선 오영희 씨

조계종 포교사로 활동 중인 오영희씨(64)가 최근 제간 시조세계 제5회 신인상을 수상했다. 오씨의 고향이기도 한 경남 하동 섬진강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시조 '섬진강 소년'으로 시조시인으로 등단한 것이다.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퇴임한 후 부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아마타구품연지춤 연 구회와 아마추어 시인모임인 무차시낭송회를 운영하고 있는 오씨는 "글을 쓴다는 것이 쉽지않은 일이지만, 생활 속에서 그냥 지나치기엔 너무나 아쉬운 순간 순간을 우리 시조의 멋을 통해 표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자신이 운영하는 두 모임 외에 한국석불문화연구회와 고려대장경연구소에서도 활동하고 있는 오씨는 석불담사, 중국불교유적담사, 인도불적 담사때의 환호로온 순간들을 시조로 남겨 지인들에게 보낼 정도로 불교문화와 우리 시조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지녔다.

"청신은 나를 보고 맑음이 살려하고로 시작되는 나용선사의 노래처럼 마음 한가운데 맑은 우물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과 기쁨을 나누고 싶다"는 오씨는 최근 고향을 꿈꾸는 마음으로 사이버 공간에 카페를 열어, '하동 포구 팔십리'를 노래하고 있다. <http://cafe.daum.net/hadongsongjini>







## 목조각에 장인의 혼이 깃든 작품

# 성불조각원

-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 성불조각원은 모든 작품을 옛 전통기법으로 재연 합니다.
- 사찰에 필요한 모든 목조각을 주문 제작 합니다.

취급품목: 목불상, 사천왕, 16나한, 500나한, 법상, 가마, 불전함, 경상 등

강원도 춘천시 칠전동 594-2  
문의전화: 033-263-1102 • 017-379-0590

전국대리점 모집



### 김홍근이 쓰는 문학속의 불교

제주도에 다녀왔다. 빗바다에 나가 거센 파도가 부서지는 방파제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흰 물결을 앞세우고 드도하게 밀려오는 파도의 모습이 마치 무리 지어 질주하는 말떼 같이 장쾌했다. 사정없이 벽에 부딪혀 흰 포말을 그리고 부서지는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있노라니, 가슴속에선 까닭 모를 감동과 흥분이 피어올랐다. 김들여지지 않는 야생(野生)과 자유의 정신!

산과 바다와 구름이 아가자기하게 어울리는 제주의 풍경은 언제 봐도 이국적인 정취를 안겨준다. 차창을 통해 제주 특유의 완만한 오름(기생화산들이 빚어내는 색다른 능선미를 감상하다가, 문득 '관광'이란 말이 어원이 생각났다. 그것은 주역의 계사에 나오는 말로서, '관국지광(觀國之光)'의 준말이다. 말하자면, 관광이란 단순히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정신(魂)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지방의 최고의 산물은 무엇일까? 지방마다 특산품이 있지만, 그 지방을 대표하는 산물은 결국 인물(人物)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 인물의 정수는 고고한 정신일 것이다.

### 추사 '세한도'

### 예술의 본질 '겉보다는 속' 이 또한 不二禪

제주문화의 가장 큰 특 징 중 하나는 '유배문화'라고 할 수 있다. 바다 너머 험한 땅 제주도에 유배 왔지만 처절한 고독을 딛고 자신의 학문과 예술을 완성한 이도 있는데, 그 대표적 인물이 추사 김정희(1786~1866)이다. 9년 간에 걸친 인고(忍苦)의 유배생활은 개인에겐 불행한 것이었지만, 독자적인 사상과 예술의 세계를 확립한 추사(秋史)가 이 궁벽한 벽지에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하늘의 묘한 섭리를 느끼게 한다.

추사가 유배에 살던 초가는 제주도 내에서도 외진 서남쪽 끝에 있었다. 그곳에서 그려진 추사의 '세한도(歲寒圖)'는 고직하고도 탁속한 심경을 농축과 초가집을 빌어 표현한 작품으로 국보 제180호이다. 제자인 역관(譯官) 이상적이 연경에 다녀올 때마다 구해온 진귀한 서적을 유배객인 자신에게 꾸준히 보내오는 데 대한 고마움의 보답으로 추사가 그려준 것이다. 그림과 함께 쓰인 글의 내용은 '추은 겨울철이 된 뒤라야 송백(松柏)이 푸르게 남아있는 가치를 알 수 있다'는 것으로 변치 않는 천지간의 우정을 노래한 것이다.

평생을 곁이한 부인의 죽음 소식을 듣고도 어쩔 수 없었던 고독한 유배객 추사에게 가장 위안이 되었던 것은 바다 건너 해남 대둔사 일지암에 살았던 자기(己己) 초의 선사와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것이었다. 유배가 풀린 뒤 서울로 돌아온 추사는 아버지의 묘소가 있는 과천과 봉은사를 오가며 서도와 불교신앙생활에 열중했다고 한다. 그의 대표적 난초 그림인 '불이선란(不二蘭)'에 쓰여진 다음의 문구는 기법보다는 정신(文字를 書畫氣이 중요하다는 추사의 예술관이 잘 나타나 있다. "난초를 안 그린 지 20년 만에 우연히 그려냈다. 문을 닫고 마음 속의 자연을 거둬 생각해보니, 이것이 바로 유마(維摩)의 불이선이다." 즉 난초는 그 정신을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삶의 온갖 어려움을 겪어낸 노대가(老大家)가 본 예술의 본질은 '겉보다는 속'이며, 이것은 그대로 인생에도 적용되는 원리인 것 같다.

■문학평론가